■광주·전남 톡톡 튀는 이색 신년맞이

31사 장병 3천명 '릴레이 헌혈'

전남체신청 도미노 3만개 쌓기
강진-100km 울트라 마라톤
목포-전국 첫 '선상 불꽃쇼'

"산에서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보며 신년 소망을 비는 것은 '구식'?"

오는 31일과 내년 초 광주·전남에서는 톡톡 '튀는' 신년맞이 이벤트가 펼쳐진다.

강진에서는 31일 오후 7시부터 강진~장흥 100km를 달리는 울트라마라톤이 펼쳐진다. '강진울트라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267명의 건각(健脚)들이 참가, 다음날인 1월1일 오전까지 남도의 명산 월출산 자락을 끼고 질주한다. 주최 측은 41.8km지점과 55km지점, 75.8km 지점에서 식사와 음료를 제공하고 완주자에게는 따뜻한 떡국을 끓여준다.

전남체신청은 1월2일 오전 9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청사 앞에서 '열정·창조·고객·전남청'이라 적힌 3만여 조각의 도미노를 쌓는다. 전남체신청은 또 황금돼지 해를 맞아 전 직원에게 황금돼지 저금통을 개인별로 나눠주고, 1년 뒤 회수해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키로 했다.

광주시 남구청 직원들은 자원봉사로 새해를 시작한다. 이들은 1월2일 시무식에서 '행복 출발, 효사랑봉사단' 출범식을 갖고, 40여명이 남구 방림동 저소득 독거노인 가정에 연탄을 배달할 계획이다. 구청 측은 봉사활동에 참가한 직원에게는 인사고과에 우대점수를 주고, 우수 공무원에는 표창을 해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순천대학교는 1월2일 오전 8시 전 교직원이 대학본부 앞 '새천년 기념비' 앞에 모여 새해 소망과 각자의 다짐을 적은 봉투를 황금돼지 형태의 타임캡슐에 넣는다. 순천대는 이 타임캡슐을 2007년 종무식 때 개봉할 예정이다.

목포시와 '씨월드 고속훼리'는 31일 밤 9시 목포 평화광장 앞바다에서 전국 최초로 '선상 불꽃 쇼'를 펼친다. 제주에서 출발한 '씨월드 고속훼리호'(1만6천t)는 이날 평화광장에 모인 2천500여명의 관중 앞에서 10여분 간 갑판에서 폭죽을 쏘아올린다.

고요한 산사(山寺)에서 불경을 들으며 새해를 맞는 프로그램도 인기다. 순천 송광사는 31일 오후 4시~내년 1월1일 오전 11시 '2007년 새해맞이 산사체험'을 실시한다. 참가자들은 새해 첫날 새벽 3시부터 반야심경과 금강경을 외고 108배를 한 뒤, 조계산 대장봉(해발 762m)에 올라 해를 맞는다. 송광사 측은 당초 60명을 모집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80여명이 접수했다.

육군 31사단은 1월2일 시무식 후 '새해맞이 사랑의 릴레이 헌혈'을 진행한다. 서길원 사단장(소장)과 군무원의 헌혈을 시작으로 내년 2월23일까지 사단 예하 36개 부대 3천여명의 장병들이 잇따라 헌혈을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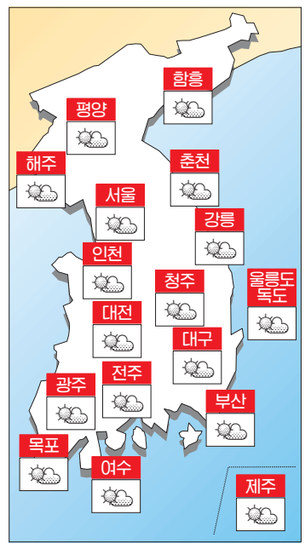
광주 롯데백화점은 1월2일부터 2~3층 매장에 사전에 섭외한 역술가를 배치,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무료로 신년 운세를 봐준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살 떨리는 찬 바람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오후 늦게 구름이 많아지겠다.

12월 30일 (음 11월 11일) ◇전국날씨

광 주	맑은 뒤 구름많음	-6~5℃
목 포	맑은 뒤 구름많음	-4~4℃
여 수	맑은 뒤 구름많음	-2~6℃
완 도	맑은 뒤 구름많음	-3~5℃
구 례	맑은 뒤 구름많음	-8~6℃
해 남	맑은 뒤 구름많음	-7~5℃
장 흥	맑은 뒤 구름많음	-7~5℃
고 흥	맑은 뒤 구름많음	-7~6℃
순 천	맑은 뒤 구름많음	-8~6℃
영 광	맑은 뒤 구름많음	-5~4℃
진 도	맑은 뒤 구름많음	-6~5℃
전 주	맑은 뒤 구름많음	-7~4℃
남 원	맑은 뒤 구름많음	-10~4℃
정 읍	맑은 뒤 구름많음	-8~3℃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5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1.5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10:21 22:26 썰물 02:59 15:55
여 수 밀물 05:32 17:42 썰물 11:41 23:54

▲해뜸 07:40 ▲해짐 17:29 ▲달뜸 13:35 ▲달짐 02:5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31(일)	1/1(월)	2(화)	3(수)	4(목)	5(금)
날 씨						
최저/최고	-3/7	-1/9	0/11	2/10	4/8	5/9

광주일보 '쌍나팔'로 본 올 한 해 세태

광주·전남인들의 희로애락이 녹아있는 세태 가십 광주일보 '쌍나팔'에는 올 한해 어떤 이야깃거리가 자주 등장했을까?

우선 전국적으로 사행성 PC방과 오락실 광풍(狂風)이 불면서, 이를 소재로 한 가십이 많았다. 정모(여·43)씨는 여수시 문수동 신천지 성인게임장에서 종업원 김모(여·23)씨와 자리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흉기로 김씨의 어깨 등을 3차례 찔렀다.(8월28일자)

게임장에서 1시간에 325만원의 '대박'을 터뜨린 박모(47)씨는 "오류가 발생했다"며 종업원이 게임기를 꺼버리자 종업원과 주먹 다툼을 벌였다.(12월25일자)

김모(여·46)씨는 여성 전용 사우나에 도박 프로그램이 내장된 PC를 설치하고 영업을 했지만, 여경들에 의해 붙잡혔다.(9월27일자)

올해 도둑들은 교회나 결혼식장 등 '경건한' 곳을 즐겨(?) 찾았다. 박모(36)씨는 광주시 서구 내방동 J교회 예배당에서 청테이프를 붙인 철제 옷걸이를 헌금함에 넣어 15만3천원을 훔쳤다.(8월7일자) 정모(45)씨는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한 예식장 식당에서 이모(35)씨가 바닥에 내려놓은 축의금 가방을 들고 도망쳤다가 철창 신세를 졌다.(6월13일)

장지(葬地)에 가기 전 집에 두고 간 조의금을 몽땅 털어가기도 했다. 지난 5월 이모(여·46)씨는 "장지에 가기 앞서 조의금을 집에 두고 왔는데, 장례식을 모두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조의금과 반지 등 금품이 모두 없어졌다"고 신고했다.(5월15일)

'얼빠진' 도둑들의 이야기는 올해도 어김없이 지역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허모(43)씨는 단골 술집에서 수표 등 250만원을 훔쳤지만, 며칠 뒤 술집 주인이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실수로 훔친 수표를 건네줬다가 도둑질이 탄로났다.(11월10일)

장모(47)씨는 완도군 청산면에서 김모(여·60)씨의 집을 턴 뒤 인근에서 술을 마시며 범행 성공(?)을 자축했다. 취한 장씨는 금반지 2개를 길에 떨어뜨렸고, 하필 순찰 중인 경찰이 뒤에서 반지를 주웠다. 장씨는 뻔뻔하게 "내 반지니 내놓으라"고 우기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전과 조회 등 추적 끝에 결국 범행이 들통나고 말았다.(4월6일자)

축의금·조의금 노린 절도범들 활개
'얼빠진' 도둑들 어김없는 웃음 선사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헌혈 동참 고마워요" 광주 청소년 적십자단(Red Cross Youth·RCY) 회원 30여명이 29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헌혈의 집에서 헌혈 중인 학생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RCY는 광주지역 혈액 보유량이 적혈구 농축액 1.85일분, 혈소판 농축액 0.7일분을 기록한 이날 금남로 일대에서 '헌혈 캠페인'을 벌였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수입쇠고기 국산으로 못 속인다
식약청 분석 키트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의 유전자 염기서열 차이를 이용해 한우인지, 아니면 수입산 쇠고기 인지 알아낼 수 있는 판별법과 분석 키트를 개발, 2007년 상반기 중으로 전국 시·군·구에 보급해 단속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 분석법에 대한 특허도 신청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판별법으로 한우 560마리와 헤어포드, 브라운 스위스, 리무진 등 수입소 378마리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100% 정확하게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었다.

그동안 국내 이용된 한우 판별법은 한우와 젖소의 털색 차이만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한우와 유사한 갈색털을 가진 수입육 구분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새해부터 영업장 면적이 300㎡(약 90평) 이상인 중·대형 일반 음식점 중에서 갈비나 등심 등 쇠고기 구이를 조리해 판매하는 식당은 의무적으로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된다.

만약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것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연합뉴스

고교-대입관계자협 '논술 길라잡이' 발간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권영건 안동대 총장)는 29일 고교-대학 입학관계자협의회에서 만든 논술교재인 '논술 길라잡이'를 발간,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통합교과형 논술의 개념이해, 논술문제 분석, 글쓰기 방법, 첨삭지도 방법, 2008 대입 논술반영 현황 등이 정리돼 있다. 특히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12개 주요 대학의 기출문제 및 예시문항도 수록돼 있다.

대교협 대학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http : //univ.kcue.or.kr)에 들어가면 전문을 볼 수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해넘이 흑산도 17시37분 가장 늦고
해돋이 순천 07시19분 가장 일찍 떠

한해가 끝나는 것이 아쉽다면 '흑산도'로 가는 게 좋다.

29일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12월31일 흑산도의 해넘이 시간은 오후 5시37분으로 가장 늦다. 목포·해남·완도·무안은 4분 빠른 오후 5시33분이며, 광주·고흥은 오후 5시30분이다. 여수·순천은 오후 5시28분, 광주·전남에서 해가 제일 빨리 진다.

새해 첫 해를 가장 빨리 보려면 '순천'이 좋다. 1월1일 순천의 일출시간은 오전 7시19분으로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2위인 여수(오전 7시36분)보다 무려 17분이나 더 빠르다. 다음은 고흥 오전 7시38분 ▲완도 오전 7시39분 ▲해남 오전 7시40분 ▲광주 오전 7시41분 ▲목포 오전 7시42분 ▲무안 오전 7시43분 ▲흑산도 오전 7시45분 순이다.

하지만 새해 첫 해돋이는 구름 사이로 봐야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아직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새해 첫 아침에는 구름이 많이 끼고, 아침 기온도 영하 1도로 예상돼 엷은 안개가 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광주 고교 수업료 새해 3% 인상

내년에 광주지역 고등학교 수업료가 3%로 인상될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9일 내년도 고교 수업료를 3%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 안을 입법예고했다.

규칙 안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경우 2006년 연간 127만800원이었던 수업료가 2007년 130만9천200원으로 3만8천400원(3.0%) 오른다. 유치원은 24만4천800원에서 25만2천원으로 7천200원(2.9%), 광주고와 전남여고 부설 방송통신고는 12만8천400원에서 13만2천원으로 3천600원(2.8%) 각각 인상된다.

이번 인상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 교육부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최종 확정 공고된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